“언니의 울음소리 직접 녹음했죠”

영화 ‘사바하’ 1인 2역 이재인

중학생 배우 연기 위해 삭발 감행
“칭찬 들으니 밥 안 먹어도 배불러”

16년 전 태어난 쌍둥이 자매. 동생은 언니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은 채 살아간다. 온몸에 털이 난 흉측한 괴물 모습으로 태어난 쌍둥이 언니는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신예 배우 이재인(15)은 영화 ‘사바하’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생 금화와 이름조차 없는 언니 ‘그것’, 두 역할을 오롯이 표현해냈다.

26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금화와 ‘그것’의 1인 2역이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금화를 연기할 때는 금화만, ‘그것’을 연기할 때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원래 ‘그것’은 다른 배우가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하면 금화 연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욕심이 났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그는 초등학교 시절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한다. 중학생 배우로서는 쉽지 않았을 삭발까지 감행했다. 이재인은 “‘그것’은 백지상태인 모습으로 표현돼야 했다”고 삭발 배경을 설명했다.

“삭발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여름에는 계속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더웠죠. 가발 쓰고 축구시합을 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있거든요. (웃음) 영화에서 털이 빠지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를 미는 것은 사실 당연하죠. 배우 활동을 하면 언젠가 한 번은 삭발을 하는 역할을 할 것만 같았어요.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온 것뿐이죠. 사실 머리가 없어서 세수할 때는 편했어요. 눈썹도 밀었는데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영화의 어두움과 음산함을 한껏 끌어올리는 ‘그것’의 울음소리도 모두 이재인의 목소리다. “유튜브에서 괴물 소리, 동물이나 아기 울음소리, 귀신 소리를 다 찾아봤어요. ‘그것’이 서러워서 오열하는 느낌이 들도록 했고요. ‘그것’의 동작을 익히면서 음성 연습도 같이했죠. 집에서는 할 수 없어서 주로 차에서 연습했어요.”

금화를 표현할 때는 언니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에 집중했다.

“금화의 언니에 대한 마음에는 증오도 있지만 미안함, 혈육 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싫지만 좋은 거죠. 겉으로는 세 보이고 나빠 보이면서도 슬픔과 공허함이 담겨있는 금화의 눈빛을 연기하기 위해 감독님이랑 상의도 많이 했어요. 눈빛으로 연기하는 법을 많이 배웠죠.”

그는 “세 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다. 친한데 가끔은 밉기도 하다”며 “그래서 더 공감됐다”고 웃었다.

이재인은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메모지에 전부 써서 질문하면서 공부했죠. 사실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웃음) 누구나 생각했을 ‘신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고민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는 “‘사바하’의 인기가 얼떨떨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생긴다”며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2012년 드라마 ‘노란복수초’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이재인은 ‘아이 캔 스피크’(2017), ‘어른도감’(2017)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극 속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계속 다른 인물들을 만나보고 새로운 역할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둡고 슬픈 역할을 많이 했는데 밝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연기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연기하고 싶어요. 평생 하겠다는 뜻이죠. (웃음)” /연합뉴스

김정훈, 전 연인에 피소…임신설 등 ‘침묵’

‘연애의 맛’진정성 의심 당혹

김정훈

그룹 UN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정훈(38)이 교제했던 여성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훈이 해당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등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사자는 이틀째 침묵 중이다.

27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훈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여성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 중 임신했는데,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요구한 데 이어 집을 구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준 뒤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훈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 기간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본인에게 확인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이틀째인 이날까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는 본인은 물론 소속사도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김정훈이 최근 출연했던 TV조선 가상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도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김정훈은 ‘연애의 맛’에서 인천공항 아나운서 김진아 씨를 소개받아 가상 연애를 했으며,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줘 여심을 사로잡았다.

제작진은 “김정훈이 2년간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방송을 진행했는데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연애의 맛’은 시즌 종영했지만,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서 차기 시즌 제작 시 더 많은 고민을 안게 됐다.

김정훈이 좀처럼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던 김진아에게도 대중의 시선이 쏠렸다.

그러자 김진아는 이날 자신의 SNS에 “막판에 괜히 고생하신 제작진만 욕먹고 답답했는데 차라리 다행”이라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숨을 이유는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유시민·박항서 등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

‘대화의 희열2’ 내달 2일 KBS 2TV 첫 방송

KBS 2TV ‘대화의 희열’이 더욱 풍성해진 게스트 라인업을 갖추고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KBS는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단 한 사람을 초대해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는 1인 토크쇼 ‘대화의 희열’ 시즌2를 27일 소개했다.

시즌2로 넘어오며 달라지는 건 패널 구성이다. 시즌1에 출연했던 소설가 김중혁과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은 그대로 함께하고 신지혜 KBS 기자가 새롭게 합류한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가수 유희열의 진행과 ‘1인 토크쇼’라는 포맷이다. ‘대화의 희열’ 시즌2는 기존의 예능식 토크쇼 관습에서 벗어나 지금은 거의 찾기 힘든 ‘1인 토크쇼’의 명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화의 희열’은 시즌1에서 개그맨 김숙, 국회의원 표창원, 래퍼 지코, 외국인 의사 인요한, 축구선수 안정환, ‘호통 판사’ 천종호,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 가수 아이유, MC 송해, 의사 이국종 등을 초대하고 이들로부터 진솔한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신수정 PD는 시즌2 게스트로 가수 배철수,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유시민 작가,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예고했다.

신 PD는 “게스트 라인업의 기조는 시즌1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성별,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을 섭외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밤 10시 45분 첫 방송. /연합뉴스

박상민, 11살 연하와 화촉

배우 박상민(49·사진)이 오는 4월 11살 연하의 신부를 맞이한다. 소속사 위브나인은 27일 박상민이 오는 4월 초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을 초대해 11살 연하의 연예인이 아닌 여성과 결혼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은 후 사랑을 키워왔다”며 “박상민이 예비 신부의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심, 긍정적인 마음에 반해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바로 스타가 된 박상민은 그동안 다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선이 굵은 연기를 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특별생방송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8	00 KBS 뉴스특보 〈2019 북미 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길〉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평화가 길입니다 -임진각 DMZ투어 72시간〉		30 SBS 뉴스특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6~7부
9		00 생생정보 스페셜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11		00 왜그래 풍상씨(재)	55 MBC 특별생방송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30 SBS 뉴스특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8부
12	00 KBS 뉴스특보 〈2019 북미 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길〉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1			55 MBC 특별생방송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2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SBS 뉴스특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9부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55 MBC 특별생방송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4	00 00 KBS 뉴스특보 〈2019 북미 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길〉	00 누가 누가 잘하나		
5		00 또봇 V 15 타오르지마 버스터 2 30 영상앨범 산(재)		30 SBS 뉴스특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10부
6		00 KBS 경제타임 30 3.1운동 100주년특집 전야제 100년의 봄 1~2부	55 MBC 뉴스데스크	
7				30 특집 SBS 8 뉴스
8	30 비켜라 운명아		55 MBC 특별생방송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40 KBC 8 뉴스
9	00 특집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김순애〉	05 왜그래 풍상씨(재)		00 SBS 뉴스특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11~12부
10	00 2019 북미정상회담 기획 토론 평화의 봄은 오는가	00 왜그래 풍상씨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MBC 특별대담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문화사색	30 특집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숨은 평양 찾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7:30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랄랄라 뿌우
09:00 두다다쿵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깻잎 대파찜과 관자 숙주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14:30 엠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6:15 출동! 슈퍼윙스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1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9:30 EBS 뉴스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동화(冬話) 4부 가장 추운 길 검문 촉도〉
21:30 한국기행 〈뭉쳐야 산다 4부 아들이 돌아왔다〉
21:50 특집 다큐 〈교육개혁, 성공의 조건 :새로운 거버넌스의 탄생〉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8일(음 1월 24일 丙申)

子 36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48년생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해 봐야 한다. 60년생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관재구설을 자초 하리라. 72년생 자연히 해결 될 것이니라. 84년생 무심코 한 행위가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국세이다. 행운의 숫자 : 60, 15

丑 37년생 주체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이익이니라. 49년생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가닥을 잡을 수 있느니라. 61년생 전전긍긍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을 알라. 73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 85년생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24

寅 38년생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 하라. 50년생 한 번 잃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느니라. 62년생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74년생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 86년생 잃었던 것을 찾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다. 행운의 숫자 : 53, 10

卯 39년생 새로운 것이 생기는 기쁨이 있느니라. 51년생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63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75년생 부담스러웠던 일의 수고로움을 덜어 주는 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87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75, 69

辰 40년생 길이 바쁘니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의연히 대처할 함이 정답이다. 64년생 이치에 밝다면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다. 76년생 예상대로 진행되겠지만 의외의 변수도 보인다. 88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85

巳 41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니라. 53년생 과잉 집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다. 65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임에 틀림없다. 77년생 무주공산을 걷고 있는 판도라 할 것이다. 89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 시키리라. 행운의 숫자 : 24, 35

午 42년생 시일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자. 54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느니라. 66년생 극히 이례적이라 할만하다. 78년생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90년생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70, 48

未 43년생 치밀하게 구성 되어야만 한다. 55년생 미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67년생 주변에 인연이 박한 이들이 보인다. 79년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91년생 실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행복지수가 매우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 43, 70

申 44년생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다. 55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68년생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리라. 80년생 책망은 몰래하고 칭찬은 알게 하는 것이 좋다. 92년생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판세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79, 01

酉 45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57년생 주체적으로 운용하라. 69년생 얽힌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하느니라. 81년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절실하다. 93년생 일시적인 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키 어렵겠다. 행운의 숫자 : 69, 97

戌 34년생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46년생 당위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일이다. 58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함이 바람직하도다. 70년생 가볍게 여겨 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82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면모이니라. 행운의 숫자 : 90, 59

亥 35년생 단처만 잘 잡아낸다면 진전을 보이리라. 47년생 몸에 밴 악습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형상이다. 59년생 수단과 기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71년생 입체적인 고찰이 효과적이다. 83년생 미묘한 인간관계에 따른 고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8,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